

포덕 157년

신년사



포덕 157년 1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식 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 문 3 회 병 송
1. 신 년 사
1. 합 동 배 례
1. 천 덕 송 합 창 (공락가)
1. 만 세 삼 창
1. 심 고
1. 폐 식

신년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포덕 157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덕님들의 앞날과 도가에 한울님 감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천도교인으로 만나 한자리에서 수도하고 천덕을 펼치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전하여, 후천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입니다. 서로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며 감사와 감동을 나누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심고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신종 괴질이 창궐하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고질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나 기상이변, 생명경시 풍조와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또한 국가 차원의 인권 관련 사항이나 언론 자유, 양성평등, 정책의 투명성과 청렴도 등 국가의 전반적인 지표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신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국 경제의 위

기, 일본의 신군국주의화 조짐 등 나라 안팎으로 어느 것 하나 평안한 소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8.25 남북 합의를 이루고 이어서 추진된 남북 공동 사업들이 우리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천도교는 금강산과 개성에서 잇달아 접촉을 갖고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100주년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도교단은 지난 한해도 기본이 충실한 교단, 소통하는 교단, 미래를 준비하는 교단이라는 목표 아래 동학농민혁명 121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가기념일 제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또한 천도교단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첫 삽을 뜬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 밖에 시천주 복지재단 설립,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운동으로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 어린이와 어른을 공경으로 모시는 교단으로 가기 위한 걸음마를 시작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적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안락할 수 있지만,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것이 천도 사업이요 교회 사업이어서 시간도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함에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착수

가 곧 성공이라 한 선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만년 무극대도의 기틀을 좀 더 탄탄히 다진다고 생각하면 한두 해 더디 가더라도 바르고 정확하며 먼 훗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正道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천도교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첫 삼을 뜨는 결실을 거두었다면,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는 올해부터는 교회 중흥은 물론 다시개벽의 목표를 향해 한 소쿠리를 더 보태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어받는 발걸음은 방향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며, 기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야말로 정성과 공경 그리고 한번 정한 마음을 변치 않은 믿음의 공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천도교 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라는 목표 속에서 전국의 지역별 기념사업회를 아우르고, 남과 북이 함께하며 동아시아 평화와 정신개벽을 통한 통일 조국의 미래와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0주년 행사 이후 동학 천도교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확연히 달라졌으며, 손바닥에 주문을 써 달라고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올 한 해의 3.1운동 100주년 사업은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 받아,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우며, 남과 북이 역사적 공통분모를 극대화함으로써 통일시대의 미래상을 함께 그리는, 큰 역사를 써 나갈 사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밖에도 시천주복지재단,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운동 등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 새 시대를 향한 장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업 전개에 힘입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지원을 받는 특별회계사업비가 천도교 유지재단의 지원금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동덕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모두가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침과 뜻을 이 세상에 널리 퍼는 포덕 활동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광제창생의 목적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스승님과 천도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먼저 권하지 않아도 삼칠 자 주문을 묻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천도교와 함께 하자는 사업들은 나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이제껏 진심갈력해 온 도심과 도력, 교리와 교사의 역량을 갖춘 교인들의 동귀일체는 물론 교회 전체적으로도 기관 상호간의 역할과 기능수행의 조화를 기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 나가는 것 또한 올 한 해의 과업입니다.

일찍이 해월신사께서는 주문만 외우고 이치를 생각지 않아도 옳지 않고, 이치만 연구하고 주문을 한 번도 외우지 않아도 또한 옳지 않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일은 주문 수련의 연장선이어야 하며, 수도연성은 사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조직, 어느 단체를 맡고, 이끌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는 앞서서 일을 만들고 방향을 가리켜, 더더욱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위력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3월 우리 교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정기전국대회에서 새로운 교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이제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새로 모시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함께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회는 결코 몇 명의 지도자 선출하는 대의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의암성사께서 대헌을 마련하신 이래 교인 전체의 총의로써 지켜 나가고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의 면모를 일신하는, 교인 모두의 소중한 잔치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나온 3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3년과 그 너머 30년 그리고 100년 중일변을 위한 지혜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157년 전 수운대신사께서 선언하신 다시 개혁의 징조를 이제야 세상 사람들이 얼핏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격변의 시기인 만큼 우리 앞에 다가올 시련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매년 늘어나고 심해지는 재난과 사건들이 올해 또한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지구촌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모순과 질곡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잡한 것과 공기의 부패한 것이 그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앞에 닥쳤도다.”라고 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한편으로 이신환성의 수련을 지극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의암성사의 삼전론 - ‘도전’ ‘재전’ ‘언전’을 자기계발과 시대 개혁의 화두로 삼아 새로운 세상의 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덕여러분 !

기회는 언제나 위기의 계곡 건너편에 있다는 평범한 세상의 이치가 의미하듯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수록 우리 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사명은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회고할 때 올해는 우리 교단 역사상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가능성을 안고 출발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교단 중흥의 새 계단에 올라서는 중요한 해이며,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동학 천도교의 위대한 진면목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는 해가 되리라는 확신도 갖습니다.

동덕 여러분!

모두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올 한해를 천도교의 해, 천도교인의 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심고하면서 신년사를 마칩니다.

포덕 157(2016)년 1월 1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제17장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에 소 리 소 리 울 리-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리 세 간악 마 도 망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덕 널 리널 리 떠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람 온 누리 에 부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틀 울 리는 곳 에 궁 울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복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흥 초 록 봄 - 언덕 에 온 갓 새 부르짖 네

후렴

든 도 보 도 못 -한 이 - 품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천도교중앙총부

110-7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번지(경운동88)

www.chondogyo.or.kr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